발간사

이후의 시대를 역동적으로 재구성하기

우리는 현재 이후(以後)의 시대를 통과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과 이태원 참사라는 재난의 이후,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촛불 혁명과 그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후의 시대는 지난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의 촛불 혁명은 새로운 전망을 밝히는 듯하였으나, 진정한 애도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분법적 갈라치기라는 정치 전략 속에 사회의 균열은 가속화되었다. 그리고 다시 코로나와 이태원 참사라는 재난의 시대를 지나게 되었다. 혁명 이후에 도래하는 반동의 시대는 혁명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게 한다.

재난과 혁명과 반동의 지난한 전개 과정에서 페미니즘은 우리 사회가 이루어내야 할 변화의 본질적인 지점을 꾸준하게 문제화하고 있다. 2016년 즈음 시작된 '페미니즘 리부트' 현상은 기존의 가부장적 자본주의 질서로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능함을 제시하였다.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백래시가 강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페미니즘 이론 및 실천은 혐오의 정치에서 벗어나 수많은 타자적 존재와 연대하려 노력하고 있다. 여성의 타자성은 이 사회에서 소외된 또 다른 소수자, 즉 퀴어, 장애인, 프레카리아트, 동물, 비인간 등과 공감과 연대를 모색하게 하였다. 이렇게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페미니즘 문학, 이론 그리고 실천은 우리 사회의 정상성에 대한 비판적 사유의 장을 열었다.

이에 《여성문학연구》 61호는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라는 주제로 특집을 마련하였다. 이는 한국여성문학학회가 지난 2년간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고민해 온 주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초에 '한국문학의 페미니즘적 전회에 대한 해석과 전망'이라는 콜로키움을 진행하였다. 콜로키움을 통해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라는 시공간 속에서 자신의 문제의식을 연마해온 젊은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를 모아낼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여성문학연구》 61호를 통해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특집을 구성하면서 페미니즘 리부트에 대한 더욱 다양한 시각을 소개할 수 있게 되었다.

《여성문학연구》 61호 특집으로 실린 논문은 모두 5편이다. 김은하의 「젊고 아픈/미친 여자들과 자기 이론으로서의 글쓰기-여성 거식증에

관한 일인칭 서사를 중심으로」와 천서윤의 「2020년대 여성 소설가 소설에 나타난 자기 서사의 윤리-조남주의 「오기」, 박서련의 「그 소설」, 이미상의 「이중 작가 초롱」을 중심으로」, 그리고 박찬효의 「2010년대 이후 장애 여성 소설에 나타난 자기 돌봄의 정치성: 김미선, 공선옥, 김초엽을 중심으로」가 있으며, 박다솜의 「임신중지 서사의 감정 각본 다각화-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의 한국 소설을 중심으로」와 윤혜정의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여성가족소설에 나타난 균열의 양상과 의미-김혜진, 《딸에 대하여》와 황정은, 《연년세세》를 중심으로」가 있다.

김은하와 천서윤 그리고 박찬효의 논문은 여성, 장애인, 소수자의 자기 정체성 형성이 일반, 정상, 남성 중심의 정체성 형성과 어떻게 다르게 이루어지는가를 다루고 있다. 김은하의 「젊고 아픈/미친 여자들과 자기 이론으로서의 글쓰기」는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질병과 광기를 고백하는 여성의 자기서사가 급증하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박채영과 박지니의 거식증 관련 자기서사를 통해, 최근 젊은 여성들의 자기서사가, 자신의 욕망과 공동체의 이상을 조화시켜 사회적 통합을 지향하는 근대적 성장서사와 다른, 사회에서 뚜렷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이들이 슬픔과 분노를 표현하고 대항적 정체성을 찾아 나가는 미디어로 기능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천서윤의 「2020년대 여성 소설가 소설에 나타난 자기 서사의 윤리」 또한 여성의 자기서사가 근대, 일반, 남성 주체의 발전과 성장에 고착되어있는 정체성에서 벗어나 여성의 삶을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구성해 내는 일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논문은 조남주, 박서련, 이미상 세 여성 작가가 쓴 소설가 소설을 중심으로,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본격화된 여성의 삶의 재현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 이를 통해 여성의 자기 서사가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발화하는 방식이자 발화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기 배려의 방식임을 보여준다.

박찬효의 「2010년대 이후 장애 여성 소설에 나타난 자기 돌봄의 정치성」은 여성과 더불어 장애인의 정체성 문제까지 탐구한다. 이 논문은 김미선, 공선옥, 김초엽의 장애 여성 소설을 다루고 있다. 이들 소설은 자기 돌봄을 지향하면서 그동안 무성적 대상, 역사적 고통이 은유화된 몸, 비극의 장소로 규정된 장애 여성의 존재성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를 통해 최근 장애 여성 소

설은 가부장적 자본주의 중심의 국가·사회의 돌봄 체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장애에 대한 기존의 사유를 전환하고 연약한 돌봄의 공동체를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박다솜의 「임신중지 서사의 감정 각본 다각화」와 윤혜정의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여성가족소설에 나타난 균열의 양상과 의미」는 페미니즘 이론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 박다솜의 논문은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한국 문학장 안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임신중지 서사를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는 에리카 밀러의 감정 각본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임신중지 서사가 슬픔, 죄책감, 수치심 등 부정적 감정과 결합되어 온 양상을 비판한다. 그러면서 이현석, 하명희, 박서련, 이서수의 작품에 나타난 임신중지 재현 양상이 기존 임신중지 감정 각본에 새겨 넣는 균열들에 주목하였다.

윤혜정의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여성가족소설에 나타난 균열의 양상과 의미」는 김혜진과 황정은의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가족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최근 소설의 흐름에 주목하고 있다. 이 논문은 여성가족소설을 통해 여성 공동체와 그들의 연대라는 희망찬 전망만을 읽어내지는 않는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성 공동체에 내재한 균열과 분화의 양상들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페미니즘 안에서 페미니즘을 어떻게 부단히 갱신할 것인지, 현재 페미니즘이 안고 있는 숙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탐구를 놓치지 않고 있다.

이번 호 《여성문학연구》에 실린 일반 논문들 또한 여성 문학사를 갱신하며 여성의 글쓰기와 시대별 여성의 재현 양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김정경의 「「한중록」에 나타난 혜경궁 홍씨의 현실 인식 연구」와 서정자의 「김말봉의 《별들의 고향》(완본) 연구」 그리고 이미영의 「사랑과 착취의 문화경제」는 조선시대에서 한국전쟁기 그리고 1990년대에 이르는 여성 작가들의 문학적 성과 및 여성 재현 양상을 분석하고 있다. 김정경의 논문은 혜경궁 홍씨의 국문장편소설 독자로서의 성격에 주목하며 당대 여성들이 조선 후기 가부장제가 본격화되는 데에 대한 불안과 저항을 여성의 글쓰기를 통해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드러내었다. 서정자의 논문은 김말봉의 《별들의 고향》 완본을 최초로 발굴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여성 문학사의 주요 작가인 김말봉의 작품 세계를 더욱 명확히 살펴볼 수 있게 한다. 이미영의 논문은 1990년대 배수아 소설에 나타

난 여자아이들의 재현 양상을 보리스 그로이스의 새로움의 문화경제학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이 시기 여자아이들의 선택과 행위가 자기 고유의 독자적인 삶을 향한 열망을 표현하는 여성-개인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권명아의 「전시 동원 체제에서 중국적인 것의 정동화와 조선적인 것의 인종화」와 김복순의 「《한양》에 나타난 '자이니치 디아스포라'의 리저널리즘 계보와 트랜스내셔널/로컬의 젠더」은 정동 정치에 대한 연구 방법론 및 담론 연구의 방법론을 통해 페미니즘 문학 연구가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권명아의 논문은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을 경유하면서 중국적인 것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탐색한다. 일본의 제국주의 정책과 전시 동원 정책 하에서 중국적인 것은 증오 정치로 대표되는 정동 정치의 목표 집단, 인구, 장소가 된다. 이러한 정동 정치는 중국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성, 장애인 등 우리 사회의 모든 소수자와 타자를 배제하는 강력한 장치로 기능한다. 김복순의 논문은 1962년에 도쿄에서 발행된 《한양》의 담론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 연구이다. 이 논문은 1960년대 진보적 잡지 《청맥》과 더불어 4·19 이후의 시대적 명제에 비판적으로 접근한 지식인 잡지였다. 이 연구를 통해 1960년대 진보적 담론의 새로운 지형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 시대 여성 담론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추천 석사 논문과 서평도 각각 한 편씩 실렸다. 주예은의 석사 논문 「김혜순 시의 놀이성 연구-1980년대 시를 중심으로」와 허윤의 《위험한 책읽기》(책과함께, 2023)에 대한 박하빈의 서평 「문학소녀 성장기 혹은 일탈기」이다. 주예은의 논문은 1980년대 김혜순의 시집 네 권을 놀이의 개념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김혜순의 시가 여성성에 대한 사유를 강화해 나가는 과정을 흥미롭게 드러내었다. 박하빈의 서평은 여성이 단순한 '독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읽는 행위'의 '주체'임을 명시한 허윤의 《위험한 책읽기》를 통해 교양이라는 명분으로 낭만적 문학 읽기만을 강요당했던 여성들이 오히려 문학을 통해 스스로를 해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후의 시대는 모색의 시간이다.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한국 여성 문학사 안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고민의 흔적을 《여성문학연구》 61호에서 담아낼 수 있어서 의미 있었다. 이 연구들을 통해 일상을 사유하는 여성 작가들의 작품을 새롭

게 발굴하여, 다시 읽어낼 수 있기도 하였다. 텍스트의 풍요로움이 여성 문학을 부단히 갱신할 수 있는 좋은 동력이 되길 희망한다.

편집위원 이주라